

## 重譯에 대한 고찰

— 錢鐘書 《圍城》을 중심으로 —

양 은 정\*

### <目次>

- |                      |              |
|----------------------|--------------|
| I. 서론                | 2. 重譯本에서 참고로 |
| II. 重譯에 대한 정의 및 평론   | 삼을만한 부분      |
| III. 錢鐘書 《圍城》 번역본 비교 | IV. 결론       |
| 1. 重譯本에 나타난 문제점      |              |

### I. 서론

우리나라의 번역은 重譯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불경 번역을 시작으로 개화기 선교사들이 참여했던 성경 번역 및 일제강점기의 서양 소설 번역 등이 대부분 重譯으로 이루어졌다. 어디 그 뿐인가.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60년대까지도 일역본을 重譯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상황은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어 교육을 받지 않고 자란 광복 세대에 의해 점차 극복되려는 움직임이 엿보였지만 90년대까지도 重譯은 여전히 중요한 번역 수단으로써 출판계에 자주 등장하였다. 하지만 重譯은 좋지 않은 것, 피해야 하는 것,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것 등으로 치부되어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때는 가장 중요한 번역 수단이었고 지금도 종종 활용되는 번역 방법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重譯에 대해서만큼은 유난히 높은

\* 중남민족대학 한국어학과 외국인교수

갓대를 들이대며 온갖 좋지 않은 수식어들을 덧씌우고 있다. 그래서 몇몇 서적이거나 논문을 살펴보다더라도 과거에는 서양의 작품을 중국이나 일본의 서적을 대본으로 하여 重譯하였다거나, 혹은 제3국의 작품을 영어로 된 서적을 저본으로 삼아 重譯하였다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도 아니라면, 重譯은 오역이 너무 많고 원문의 개성을 우리말로 충분히 살릴 수 없어 마땅히 지양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重譯은 정말 그토록 나쁜 것일까? 필자는 90년대 초반에 우리말로 번역·출판된 2종의 《圍城》을 통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역본을 저본으로 삼아 重譯한 이해란의 역문과 중국어 원문을 직접 번역한 오윤숙의 역문을 비교한 결과, 重譯으로 탄생한 이해란의 것이 결코 오윤숙의 것에 뒤지지 않았으며, 몇몇 방면에서는 중한번역에서 참고가 될 만한 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두 역문의 비교를 통해 重譯本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설명하고 이를 중한번역에서 적극 활용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 II. 重譯에 대한 정의 및 평론

重譯은 “이중번역”, “재번역”, “간접번역” 등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重譯의 정의에 있어서, 조재룡은 “‘이중번역’에서 ‘이중’은 ‘두 겹’과 ‘중복’을 함유하는, 즉 두 번 거듭되거나 겹쳐진다는, 말하자면, 번역하는데 무게가 두 번 실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뜻이 가진 복잡성으로 인해 한 가지만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하였다.<sup>1)</sup> 또한 임순정은 재번역

1) 조재룡은 “‘내가 번역한 것을 내가 동일한 언어로 다시 번역하는 작업’이나 ‘누군가 번역한 것을 내가 동일한 언어로 다시 번역하기’, 혹은 ‘번역된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하나의 텍스트를 두 가지 이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나 낯선 것과 대면하게 될 수용독자들을 배려한다는 명목하에 이것저것을 끌어낸 ‘소개 차원의 번역’도, 끌어낸 것들이 필연적으로 무언가와 겹쳐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역의 한 갈래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에 대해서 “이미 번역이 존재하는 원전을 다시 번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여기에 “다른 언어로부터 번역된 텍스트를 번역하는” 重譯뿐만 아니라, “번안, ‘축자역’, ‘부분 번역’ 등 원작의 내용과 형식에 충실하지 않은 번역본”<sup>2)</sup>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재번역도 한 마디로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모호성을 가진다. 또한 중국 학계에서도 “역자가 개작한 번역, 복역 그리고 전역(自我修訂式的翻譯、復譯和轉譯)”<sup>3)</sup>이 모두 重譯에 포함된다며 비교적 광의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 명칭이 이중번역이든 재번역이든 重譯이든 모두 “다른 언어로 1차 번역된 것을 저본으로 하여 목적언어로 2차 번역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重譯의 범위를 이상의 의미만으로 한정하고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重譯은 주로 역자가 원문 텍스트의 언어를 모른다는 전제에서 생겨났다. 예를 들어, 산스크리트어를 몰라서 한자로 된 불경을 重譯한다든지, 서양의 언어를 몰라서 일본어나 중국어로 번역된 것을 重譯한다든지, 제3국의 언어를 몰라서 영어로 번역된 것을 重譯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러다보니 重譯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대부분 번역의 필요성은 급박한 반면, 해당 외국어에 능통한 역자는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897년에 梁啓超는 하루 빨리 서양의 발전된 사상과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늘날 일본어를 배워 일본어책을 번역한다면 수고로움은 적고 이득은 많을 것이다

‘모방’에서 ‘다시쓰기’, 작품의 ‘조작’과 ‘변형’에서 전면적인 수정을 가한 개작에 이르기까지, 아니 ‘원전의 재-영토화와 그 과정’ 전반을 의미하는 ‘번안’ 역시도 중역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였다. 조재룡, <중역의 인식론: 그 모든 중역들의 중역과 근대 한국어>, 《아세아연구》 제54권 3호, 2011년, 10-11쪽.

- 2) 임순정, <재번역본에 나타난 동질성과 이질성 -‘적과 흑’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제6권 1호, 2008, 1-2쪽.
- 3) 劉桂蘭, 《論重譯的世俗化》, 武漢大學出版社, 2015, 2-3쪽. 復譯은 이미 역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문을 재번역하는 것을 가리킨다. 轉譯은 다른 언어로 된 역본을 중개로 하여 목적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가리킨다.

(今誠能习日文以译日书, 用力甚鲜, 而获益甚巨)”<sup>4)</sup>라고 하면서 일역본을 저본으로 한 重譯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1934년에 魯迅은 “중국인이 아는 외국어라고 해봤자 영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일본어일 것이다. 중역을 하지 않는다면, ……헨릭 입센도 없고 블라스코 이바네스도 없다. 뿐만 아니라 현재 유행하는 안데르센의 동화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도 볼 수 없다. 이 얼마나 가없는 시계란 말인가(中國人所懂的外國文, 恐怕是英文最多, 日文次之, 倘不重譯, ……我們將只能看見許多英美和日本的文學作品, 不但沒有伊蘆生, 沒有伊本涅支, 連極通行的安徒生的童話, 西方提司的《吉訶德先生》, 也無法看見了。這是何等可憐的眼界)”<sup>5)</sup>라며 重譯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35년에 정내동이 번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中國의 文壇을 볼 때에는 模倣할點이 淸이나 많다. …… 그네들은 翻譯을 紙, 誌에서 容納할뿐만 아니라 어떠한 翻譯할 것을 論議한다. 그네들은 重譯 三重譯을 辭하지 안하며 惡譯을 指摘하는데 게 올리하지 안는다”<sup>6)</sup>라고 하면서 중역, 삼중역이라도 괜찮으니 번역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은 5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1954년에 계용묵은 “冷水대신에 미지근한 물이라도마서야 우선 止渴이될 것이다. 完全을 固執할것이아니라 可能한限에서 이목마른 要請을 들어줘야할것……作品의 景概가 되지 아니하고作品이되는 變譯이라면 重譯이나 二重譯이나를 莫論하고 歡迎하여야할 것이요”<sup>7)</sup>라고 하였다. 이것만 보더라도 50년대의 번역 상황이 여전히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70~80년대에 접어들어 원문의 직접번역이 중시되면서, 重譯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대신, 重譯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대략 두 가지 측면에서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번역 측면에서의 비판이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오역을 언급하며 번역의 질을 의심하였다.

4) 陳福康, 《中國譯學理論史稿》,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2, 100쪽.

5) 魯迅, 〈論重譯〉, 《申報》, 1934년.

6) 정내동, 〈문단숙청과 외국문학수입의 필요(삼)〉, 《동아일보》, 1935.

7) 계용묵, 〈작품의 번역과 역자 문제〉, 《경향신문》, 1954.

예를 들어, 심동섭은 “중역이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번역 자체가 어려운데 남의 말로 번역된 것을 다시 또 우리말로 옮기는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하면서 《안네의 일기》를 예로 들어, “그 책의 첫 여섯 페이지 가운데 중역에서 생긴 오역이 열두군데나”<sup>8)</sup>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용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전문가의 경우라도 좀처럼 오역을 피한다는 것은 어렵다…… 오역의 불가피성 자체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상업주의적 또는 비도덕적 중역(이중번역)과 중역에서 생겨나는 오역이다”<sup>9)</sup>라고 하면서 重譯本에서 나타나는 오역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하나는 비번역 측면에서의 비판이었다. 특히, 광복 세대가 번역계의 주류로 부상하고 영어 세대가 늘어나면서 일역본에 대한 重譯을 문화적 수치 또는 문화 식민지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이가형은 “韓國의 번역문학에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日本의 번역문학에 대한 의존이다. 번역가가 원서를 번역하면서 日本판을 참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日訳本에서 重訳을 하는 건 韓國의 번역문학을 몇 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다”<sup>10)</sup>라며 일제강점기에 빈번하게 이루어진 일역본의 重譯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자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번역서를 고를 때는 일본 서적의 중역판인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은연중에 일본인의 정서에 맞도록 교육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본 문화가 개방되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일본 문화에 세뇌되어서는 곤란하”<sup>11)</sup>라며 일역본의 重譯으로 탄생한 서적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처럼 重譯에 대한 인식은 사회 문화가 발달하고 역자층과 독자층이 다양해지면서 점차 부정적으로 변한 것을

8) 김소운 외, 〈번역문화와 오역〉, 《세대》 제6권, 1968, 300-301쪽.

9) 문용, 〈번역과 번역문화〉, 《국어생활》, 1990, 15-16쪽.

10) 이가형, 〈한국 번역문학의 현단계〉, 《매일경제》, 1982.

11)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독서교육 길라잡이》, 푸른숲, 2001, 328쪽.

알 수 있다.

여기서 重譯이 가지는 민족적 감정이나 문화적 수치는 잠시 논외로 하고, 이들이 대부분 번역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역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직접번역이든 重譯이든 오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차 언어로의 번역에서 생긴 오역을 重譯 과정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이중 오역하고, 여기에 重譯 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오역이 더해지면서 重譯本이 원문에서 더욱 멀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1차 번역된 역문이 높은 수준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를 저본으로 삼아 重譯한 것에 상대적으로 관대해질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즉, “중역이라고 할지라도 중역의 대본이 정확하고, 중역 언어를 잘 이해한 번역자가 성실하게 번역한 경우에는 되레 원전 번역보다 정확하고 오역이 적은 번역을” 할 수 있고 “또한 가독성의 경우도 오히려…… 우리말에 가깝고 읽기 좋은 경우가 많”<sup>12)</sup>을 수 있는 것이다. 김병철 또한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50년대 후반기에 가서야 주로 외국 문학 전공자들이 번역의 주역을 맡게 되었는데, 50년대를 담당한 주역들은 소위 해방 제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당시 30대 전후의 원기 발랄한 학자들이었다. 그들의 전공어 실력도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외국어를 배우기 전에 일어에 통달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번역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들의 뒤를 이은 일어를 전혀 모르는 해방 제3, 4세대보다는 한결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sup>13)</sup> 일역본을 참고로 하거나 거의 重譯하다시피 한 50~60년대의 역문이 원문을 직접 번역한 70~80년대의 역문보다 번역의 질도 우수하고 가독성도 좋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즉, 직접번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重譯보다 우수한 것이 아니며, 重譯이라고 해서 반드시 직접번역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심지어 어느 정도에서는 1차 번역된 것을 참고로

12) 김재현, <철학 원전 번역을 통해 본 우리의 근현대>, 《시대와 철학》 15권 2호, 2004, 324쪽.

13) 김병철,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 상》, 을유문화사, 1998, 88쪽.

하거나 그것을 저본으로 重譯한 역문이 직접번역보다 나올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황현산은 70년대 이후의 직접번역을 가리켜 패배주의의 대물림 가운데 나타난 “건방진 번역”<sup>14)</sup>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重譯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 III. 錢鐘書 《圍城》 번역본 비교

錢鐘書가 1947년에 발표한 《圍城》은 중일전쟁시기의 중국 지식인의 민낯을 사실주의에 입각해 묘사한 걸작으로 꼽힌다. 그래서 일찍부터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러시아 등에서 번역이 이루어졌다. 물론 한국어로도 두 번에 걸쳐 번역이 이루어졌다. 하나는 1993년 1월에 이혜란이 《황하의 노을》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출판하였고, 다른 하나는 1994년 5월에 오윤숙이 《포위된 성》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출판하였다. 이 두 작품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원작을 두고 번역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이혜란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것으로, 한중수교가 맺어지고 약 5개월 뒤에 출판되었다. 그 시기로 볼 때,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8월 이전부터 이미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는 대만이나 홍콩 작품이 아닌 중국 작품이 활발히 번역되던 시기가 아니었다.<sup>15)</sup> 그런 시기에 중국 소설 번역에 착수했다는 점이

14) 황현산, 〈번역에 깔린 패배주의〉, 《출판저널》 193권, 1996, 8쪽. 패배주의의 대물림 가운데 나타난 건방진 번역이란 “일본어에 크게 의지하였던 이 일세대 번역자들은 이제 번역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그들의 ‘일본어 실력’은 전수되지 않았다.…… 패배주의만은 그대로 대물림되었으며, 그것은 뒷세대들에게 이상한 허영심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왜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상상력과 직관과 모국어감각을 과도하게 믿게 되고, 오직 거기에 의지”해서 번역하는 것을 가리킨다.

15) 1996년의 번역 도서 출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외국어 번역서 가운데 영한 번역서와 일한 번역서가 전체의 64.2%를 차지했고, ……중한 번역서는 고작 4.5%에 불과했다.…… 70년대까지 중국과 대만 및 남한과 북한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어 중한번역은 수량이 많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한국 번역계

인상 깊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반영하듯 이혜란은 영문학 전공자로서 영역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에 착수하였다. 즉, 중-영-한으로 重譯을 한 것이다. 반면 오윤숙은 중문학 전공자로서 중국어 원본을 대상으로 하여 번역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그 시기상으로 볼 때, 한중수교 이후부터 번역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중수교 이후에 번역서가 중국 본토 작품으로 편향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작품의 중반으로 갈수록 이혜란의 것을 참고한 흔적이 엿보이기 때문이다.<sup>16)</sup>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이혜란의 것은 한중 관계의 냉전이 종료되기 직전의 산물이고, 오윤숙의 것은 냉전이 종료된 직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두 역문을 읽어 보기 전, 重譯으로 탄생한 이혜란의 역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오윤숙의 역문보다 뒤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오윤숙의 경우에는 작가의 원문을 직접번역하였으니, 누구보다도 원문 고유의 느낌과 작가의 생각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역문을 비교해 본 결과, 꼭 그렇지만은 않다

---

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중한 번역도 같이 증가하였다.…… 특히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번역서가 (대만이 아닌) 중국으로 편향되는 성향이 나타났다(1996年度译书按作者来区分时, ……这两国译书的出版比率占国内译书的64.2%。……中国4.5%……即1970年代为止, 两岸及韩国南北关系紧张, 译作甚少。……1980年代之后, ……是韩国译界的尖峰期, 中文书的翻译亦是一样。……1992年之后, 由于和大陆建交, ……而译书方面虽偏重于大陆)。孔慧怡, 楊承淑, 《亞洲翻譯傳統與現代動向》, 北京大學出版社, 2000, 165-171쪽.

- 16) 소설의 제5장부터 두 역본에서 사용된 어휘와 표현 등이 매우 유사하고 거의 흡사한 경우도 눈에 띄었다. 예를 들어, “홍지엔은 따귀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했다. 얼른 전화를 내려놓았지만 쉼의 목소리가 의식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점심때에는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근처의 작은 양식집에 가서 혼자 밥을 먹었다. 쉼이 혹시 충격이라도 받아 자살을 할지도 모른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아무 것도 먹히지가 않았다(《황하의 노을》, 148쪽)”를 “홍지엔은 따귀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했다. 얼른 전화를 내려놓았지만 쉼의 목소리가 의식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다. 점심때는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근처의 작은 양식집에 가서 혼자 밥을 먹었다. 쉼이 혹시 충격이라도 받아 자살을 할지도 모른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아무 것도 먹히지가 않았다(《포워된 성》, 201쪽)”라고 번역했다.

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重譯이라고 해서 반드시 직접번역보다 역문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부분에서는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해란이 저본으로 삼았던 영역본이 비교적 정확하게 번역되었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79년에 초판된 영역본 《Fortress besieged》는 중문학을 전공한 미국인 Jeanne Kelly와 홍콩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에서 석·박사를 졸업한 중국인 茅國權이 공동 번역하였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출신 배경은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해 줄 수 있었고, 그 결과 보통의 역문보다 그 번역 상태가 더 우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영역본은 지금까지도 중국내에서 수작으로 꼽히고 있으며, 심지어 중영 대조본으로 제작되어 중국 대학에서 번역교재 혹은 참고서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해란도 오운숙 못지않게 비교적 양호한 조건에서 번역에 착수할 수 있었다.

두 역문을 비교하기에 앞서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자면,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번역에는 많은 적든 오역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번역이란 체계가 서로 다른 두 언어 사이의 일이므로 원래가 ‘완전’하다는 것이 불가능…… 어떻게 보면 오역은 필연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두 역문에 존재하는 오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중국어 작품의 영역본을 한국어로 重譯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중번역에서 참고로 삼을만한 것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重譯本에 나타난 문제점

아무리 뛰어난 영역본이라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 특히, 중국의 옛 전통과 관련하여 영어로 잘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그대로 한국어로 重譯되어 의미가 덜 분명하게 전달된다든지 혹은 영어 표현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한국어로 重譯되면서 표현이 어색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

17) 박영록, 〈韓中翻譯과 글쓰기〉, 《중국어학논총》 제7집, 1998, 478쪽.

었다. 아래에서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sup>18)</sup>

(1) 영문 표현이 모호한 경우

① 所以这信文缙绅, 没把之乎者也用错。(원문)

his letter was couched in an elegant style without incorrectly using any of the various particles of literary Chines. (영역)

옛날 말투의 글을 제법 술술 써내려갔다. (이혜란 역)

지호자야(之乎者也) 같은 조사 한 자도 틀리지 않았다. (오윤숙 역)

② 苏鸿业呢, 人倒有点名望, 从前好像做过几任实缺官。(원문)

As for Su Hung-yeh, he dose have a bit of reputation, and apparently held a few government posts in his day. (영역)

쑤홍이에는 사람이 명망도 있고 예전에 몇번 관직에도 올랐었던 것 같더구나. (이혜란 역)

쑤홍이에는 명망도 있고 종전에 몇 차례 실결관(實缺官: 청대의 관제, 직위를 부여한 다음 결원이 생기면 임직함: 역주)을 지낸 적이 있는 것 같더구나. (오윤숙 역)

예①의 “之乎者也”는 옛날 고문에 쓰였던 어조사로, 한국, 일본,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이 아니라면 번역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것을 이혜란은 영역본에 의거하여 “옛날 말투”라고 번역한 반면, 오윤숙은 “지호자야”라고 한자 독음에 따라 번역한 뒤 한자를 별도 표기하였다. 또한 예②의 “实缺官”은 옛 청나라의 관제로, 이런 명사는 사전에도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담당하는 직위인지 알 수 없어 마땅한 대응어를 찾기 어렵다. 이것을 이혜란은 영역본에 따라 “관직”이라고 번역하였고, 오윤숙은 “실결관”이라고 한자 독음에 따라 번역한 뒤, 자세하게 역주

18) 각각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원문과 영역본은 《圍城漢英·對照》(人民文學出版社, 2003), 이혜란의 한역본은 《황하의 노을》(황계출판사, 1993), 오윤숙의 한역본은 《포위된 성》(실록출판사, 1994)에서 발췌하였다.

를 달아 독자가 알게 쉽게 하였다. 이런 모호한 번역은 중국 전통과 관련된 것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면, “填詞”와 “四喜肉”에 대해 이혜란은 “문학작품”과 “고기”라고 두루뭉술하게 번역한 반면, 오윤숙은 “전사(填詞: 사(詞)의 기존 곡조에 가사를 채워 넣는 것; 역주)”와 “사희육(四喜肉: 결혼 피로연 음식의 일종; 역주)”이라고 번역하였다. 물론, 이혜란의 표현들을 오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가독성에서도 큰 문제가 없지만, 한자문화권에서는 충분히 표현 가능한 것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2) 영역본을 한국어로 重譯하면서 표현이 어색해진 경우

③ 鴻漸拿了几件，看都是“成化”、“宣德”、“康熙”。(원문)

Hung-chien picked up a few pieces and noticed they were all marked with such reign periods as “Ch'eng-hua,” “Hsuan-te,” or “K'ang-hsi.”

(영역)

홍지엔이 몇 점을 꺼내어보니 모두 “청화(명대 헌종의 연호/웁긴이 주), “취엔더(명나라 선종의 연호/웁긴이 주), “강시(청나라 성조의 연호/웁긴이 주)” 때의 도자기였다. (이혜란 역)

홍지엔이 그중 몇 개를 들어보니 모두 <성화(成化: 명대 헌종의 연호); 역주>, <선덕(宣德: 명대 선종의 연호); 역주>, <강희(康熙: 청대 성조의 연호); 역주> 시대의 작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오윤숙 역)

④ 上句梅圣俞，下句杨大眼。(원문)

one from Mei Sheng-yu in the first line and another from Yang Ta-yen in the second. (영역)

윗 구절은 메이성위의 것이고 아랫 구절은 이양대이엔의 것인데. (이혜란 역)

앞 구절은 매성유(梅聖俞: 송대 시인 梅堯臣; 역주)의 것이고 다음 구절은 양대년(楊大年: 송대 시인 楊億. 본서는 楊大眼이나 잘못된 것으로 생각됨; 역주)의 것인데. (오윤숙 역)

예③에서는 중국 역대 황제의 연호가 등장하는데, 두 역자 모두 역주를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해란의 경우에는 국제음성기호에 따라 영문을 그대로 음역하여 한자 독음에 익숙한 한국 독자들에게 자칫 혼란을 줄 수 있었다. 반면 오윤숙은 이를 한자 독음에 따라 번역한 뒤 한자를 별도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예④에서도 이해란은 영문을 그대로 음역하는데 그쳤지만, 오윤숙은 한자 독음으로 번역하면서 역주를 덧붙인 동시에, 원문의 잘못된 부분까지 바로 잡아주는 등 원문을 넘어선 번역 실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어색한 표현은 대부분 인명 등의 고유명사에서 나타났다. 외래어표기법에 따르면,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고 나와 있다. 그래서 이상의 과거 인물들을 국제음성기호에 따라 표기할 경우 한국의 독자들은 어색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에서 익히 알려진 인물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이해란의 역문에서는 “苏东坡”를 “소동파”가 아닌 “쑤똥궈”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중문학 전공자라고 해도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 2. 重譯本에서 참고로 삼을만한 부분

일부 오역 및 이상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해란의 重譯本에서 몇 가지 중한번역에서 참고로 삼을만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 살펴보자.

### (1) 한자어와 관련된 표현

⑤ 有头脑, 有身份, 态度相貌算得上大家闺秀, 和她同上饭馆戏院并不失自己的面子。(원문)

with the brains, the status, the poise, and looks of a girl of good family. Going to restaurants and theaters with her was no cause for disgrace. (영역)

머리 좋고, 지체 높고, 몸가짐과 매무새가 모두 양가집 규수라 할만 했

고 최소한 그녀와 극장이나 식당엘 가서 체면을 잃을 염려는 없었다.  
(이혜란 역)  
머리도 좋고 신분도 있고, 태도나 외모도 대갓집 규수다와 그녀와 함께  
음식점엘 간다거나 극장에 가도 결코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다.  
(오윤숙 역)

먼저 중한번역의 경우에는 원문의 영향을 받아 한문투로 번역된 경우가 많은 반면, 영역본을 重譯한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 고유어들이 더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중한번역에서 오역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한자어이다. 특히 “한자어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형 한자어는 외관상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번역 과정에서 오역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sup>19)</sup>이 된다. 예⑤에서 오윤숙은 “有身份”을 “신분이 있”다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적합한 한국어 표현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혜란의 역문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윤숙의 역문은 대체할 수 있는 고유어 혹은 고유의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어를 남용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 같은 현상은 모국어의 간섭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 존재하는 한자어는 우리가 중국어를 활용하는데 종종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히려 한자어의 간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혜란의 역문에서 “몸가짐과 매무새” 같은 고유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중한번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익숙한 한자어라고 하더라도 역자가 다시 한 번 중한사전을 찾아보며 신중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

⑥ 过一会, 不知怎样鲍小姐又讲起她未婚夫李医生, 说他也是虔诚的基督教徒。(원문)

19) 이상정, 《한·중 한자어의 의미 및 번역에 대한 연구》,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쪽.

After a while she somehow managed to bring up Dr.Li, her fiance, saying he was a devout Christian. (영역)

이때 생각지도 않게 빠오가 또 그녀의 약혼자 리 선생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다. (이혜란 역)

잠시 후, 어찌된 일인지 빠오가 다시 자신의 약혼자인 의사 리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이라고 했다. (오윤숙 역)

물론 그렇다고 중한사전이 완벽한 것만은 아니다. 예⑥의 “虔誠”은 한국어에 없는 한자어로, 이런 경우에 역자는 사전을 찾기 마련이다. 이 단어를 중한사전에서 찾아보면 대부분 “경건하고 정성스럽다”라고 나온다. 이제 역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것을 역문으로 옮기게 되는데, 사실 “경건한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은 한국어 표현에 맞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보통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자가 번역에 임하면서 사전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중한사전만으로는 완벽한 등가를 이룰 수 없음에 유의하며 항상 우리말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지만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겠다.

⑦ 他们住在上海的人真是醉生梦死。(원문)

People living in Shanghai go around in a dream world. (영역)

상하이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없이 흐리멍텅하게 지내고 있으니.

(이혜란 역)

상하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취생몽사하는 겁니다. (오윤숙 역)

이외에도 한자어를 독음으로 옮겨 놓아 그 뜻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예⑦에서 오윤숙은 원문의 “醉生梦死”를 “취생몽사”로 번역하였다. 역자는 중국어를 전공하여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지만, 한자에 취약한 대다수의 독자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독자의 한자 실력을 탓할 수도 없는 일이다. 역자는 독자의 하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역자가 번역을 할 때는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한번역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한자어를 독음에 따라 옮겨 놓은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사자성어에서 두드러진다. 두 역자의 것을 몇 가지 비교해 보면, “비어있는 듯하면 서도 실속이 있고-허허실실”, “갈로 끊듯이 잘라내는-일도양단”, “두 가지를 검비하였으니-양수검장(양수검장의 잘못된 표기)”, “사람 꼴을 갖춘-오관칠규”, “영덩이를 들었다 났다하면서-좌불안석”<sup>20)</sup> 등이다. 역시 한자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이해란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맛을 살리고 소설의 재미도 더해주고 있었다.

이밖에도 오윤숙은 소설 전반에 걸쳐 너무 많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노름-도박”, “물-육지”, “물거품-포말”, “그릇-타구”,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일-여반장”, “은 몸을 바쳐-오체투지”, “갑자기-창졸” 등이다. 사실 한자어를 독음으로 옮기는 것은 음역과 큰 차이가 없다. 음역은 번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이지만, 독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래서 玄奘은 “음역을 가리켜 번역하지 않는 번역이다(音译既不翻之翻)”<sup>21)</sup>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한자어를 독음으로 옮기는 것은 직역과도 같다. 廖七一은 “직역이나 의역이냐의 문제는 독자 혹은 역자의 문화 심리와 관련이 있다. 문화적 열세에 처한 독자는 직역에 대한 수용력과 인내력이 강하지만, 문화적 우위를 가진 독자는 그렇지 않다(直译与意译涉及译者或读者的文化心态。弱势文化的读者对直译的接受和忍耐程度相对较高, 而强势文化的读者通常对直译的接受度较低)”<sup>22)</sup>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를 아무런 고민 없이 독음으로 옮기는 일은 번역도 아니거니와 스스로 문화적 열세를 인정하는 꼴과 다름이 없다. 조재룡은 중역이 “‘우리’ 민족과 ‘우리’ 전통, ‘우리’ 문학과 ‘우리’ 사상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계승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sup>23)</sup>

20) 전자는 이해란의 역문이고, 후자는 오윤숙의 역문이다. 이하 동일.

21) 陳福康, 앞의 책, 34쪽.

22) 廖七一, 《中國近代翻譯思想的嬗變》, 南開大學出版社, 2010, 226쪽.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 중한번역에서 고유어를 두고 한자어를 남용하는 행위야말로 우리의 말과 정신을 자발적으로 계승하지 못하고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2) 당시 시대 및 상황과 관련된 표현

- ⑧ 她去掉了黑眼鏡，眉清目秀，只是嘴唇嫌薄，擦了口紅还不够丰厚。(원문)  
and even though she wore a light lipstick, her lips were a little too thin.  
When she removed her sunglasses, she exposed delicate eyes and eyebrows.  
(영역)  
그녀가 색안경을 벗자 뚜렷한 이목구비에 비해 입술이 얇아서 입술연지를 발랐는데도 각박해보였다. (이혜란 역)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어버리자 수려한 미목이 드러났으나 입술만은 너무 알파해 루즈를 발라도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윤숙 역)

이 소설은 1937년 중일전쟁 무렵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1947년에 초판이 발행되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시대 배경과 소설 속에 사용된 표현들은 지금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90년대를 살았던 역자가 약 50년 전의 상황 및 작가의 심경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3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90년대의 단어들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⑧에서 오윤숙은 “黑眼鏡”과 “口紅”을 각각 “선글라스”와 “루즈”로 번역하였는데, 이들은 50년대 이후부터 신문매체에 등장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한 용어들로 당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반면 이혜란이 사용한 “색안경”과 “입술연지”는 50년대 이전에 주로 사용되었던 용어들로 이러한 소설 배경에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두 역자의 것을 몇 가지 비교해 보면, “인두-다리미”, “인력거-차”, “레코드-음반” 등으로, 이혜란이 훨씬 더 소설의 배경에 걸맞은 표현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23) 조재룡, 앞의 논문, 14쪽.

⑨ 谁知道从冷盘到咖啡, 没有一样东西可口: 上来的汤是凉的, 冰淇淋倒是热的。(원문)

there wasn't a single thing edible from the cold dishes to the coffee.

The soup was cold, and the ice cream was warm. (영역)

전체요리에서부터 커피까지 한 가지도 입에 맞는 것이 없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스프는 차갑게 식어있었고 오히려 아이스크림이 뜨겁게 느껴질 지경이었다. (이혜란 역)

찬 음식에서부터 커피까지 먹을 만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탕은 차가웠고, 아이스크림은 미지근했다. (오윤숙 역)

예⑨는 양식을 먹으러 간 주인공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오윤숙은 “冷盘”과 “汤”을 각각 “찬 음식”과 “탕”이라고 번역한 반면, 이혜란은 소설 속 장소의 특징을 살려 각각 “전체요리(전체요리의 잘못된 표기)”와 “스프”라고 번역을 하였다. 이것은 아주 작은 차이이지만 오역만큼이나 번역 문학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혜란의 역문을 영역본과 비교해 보면, 이것들이 단순히 영역본의 영향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역자 개인의 역량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重譯은 창작과 철저히 구분되어 “베끼기”라는 취급을 받아왔다. 일찍이 김안서는 중역을 가리켜 “고대로삼켜놓는번역”<sup>24)</sup>이라고 하였고, 魯迅도 “쉬운 번역(重譯確是比直接譯容易)”<sup>25)</sup>이라고 하였다. 즉, 원문을 직접 번역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작업이지만, 1차 번역된 것을 대본으로 重譯하는 것은 역자가 아무런 고민이나 판단 없이 그대로 베끼고 옮겨 놓기만 하면 되므로 쉬운 번역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상의 예문을 통해, 이혜란의 重譯은 당시 시대 배경 및 상황까지 고려하며 심사숙고하여 번역한 것으로, 결코 단순히 베끼고 옮겨 놓기만 한 쉬운 번역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번역하고자 하였으니, 결코 重譯이 직접번역보다 쉽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4) 김안서, <언어의순수를위하여>, 《동아일보》, 1931.

25) 루쉰, 앞의 글.

(3) 한국어 표현과 관련된 부분

- ⑩ 老话说, 要齐家而后能治国平天下, 请问有多少男人会管理家务的? (원문)  
As the old saying goes, 'The house must first be put in order before the kingdom can be ruled and the country pacified.' How many men, may I ask, can take care of domestic chores? (영역)

옛말에도 있듯이 먼저 집안을 다스린 후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집안일을 하는 남자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이혜란 역)

옛말에 집안을 평안히 다스리고 난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집안 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오윤숙 역)

- ⑪ 天仿佛听见了这句话, 半空里轰隆隆一声回答, 像天宫的地板上滚着几十面铜鼓。(원문)

The sky seemed to have overheard their remark and responded with a thunderous roar from the air as though several dozen brass drums were rolling on the floor of the heavens. (영역)

하늘은 이 말을 들은 것처럼 파르릉 하는 소리로 대답했고 하늘의 궁궐 바닥을 북 삼아 수십 개의 북채로 두드려 대는 것 같았다. (이혜란 역)

하늘은 마치 이 말을 듣기라도 한 양 우르릉 광하고 대답을 하며 천궁(天宮)의 바닥에 몇십 개의 작은 북을 두드려댔다. (오윤숙 역)

박상익은 “번역을 하는 데는 ‘외국어 실력’,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우리말 구사 능력’이 각각 30%, 30%, 40% 정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번역가로 꼽히는 이윤기, 안정효 등이 번역가인 동시에 ‘소설가’이기도 하다는 것은 번역에서 우리말 표현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sup>26)</sup>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근대 소설의 아버지로 불리는 魯迅도 소설가이면서 번역가였고, 《圍城》의 작

26) 박상익, <우리 인문학과 번역>, 《역사학보》 제174집, 2002, 368-370쪽.

가인 錢鐘書도 다수의 번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모국어 구사 능력은 번역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⑩에서 오윤숙은 원문을 직역하여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집안 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지 그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다. 반면 이해란은 “집안일을 하는 남자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라고 번역하여 작가의 의도를 한 번에 독자에게 전달해주었다. 우리말 표현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예⑪에서 오윤숙은 “천궁(天宮)의 바닥에 몇십 개의 작은 북을 두드려댔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차라리 원문을 직역한 것만도 못한 표현이다. 원문을 직역한다면 “수십 개의 구리로 만든 북이 천궁 바닥에 나뒹구는 듯했다”로, 적어도 오윤숙의 표현보다는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해란은 이것을 의역하여 “하늘의 궁궐 바닥을 북 삼아 수십 개의 북채로 두드려 대는 것 같았다”라고 하였다. 독자가 그 모습을 충분히 상상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서 꽤 훌륭한 소설적 묘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오윤숙의 역문에는 유난히 두 번 읽어야 겨우 이해가 가는 표현들이 제법 많았다. 이것들을 오역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독자의 가독성과 소설의 오락성을 떨어뜨리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영록은 “원문에 대한 분석은 비교적 정확하게 되었으나 우리말 표현이 어긋난 경우”를 가리켜 “악역”이라고 풀이하면서, 이런 행위가 “우리말 글쓰기를 어지럽힌다”<sup>27)</sup>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계용묵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外國語가 能熟한外國語學者”와 “文章의能力이 充分한 現役文人”이 “共譯으로 하는것이 가장 妥當한方法”<sup>28)</sup>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7) 박영록, 앞의 논문, 476-482쪽.

28) 계용묵, 앞의 글.

## IV. 결론

본고는 결코 두 역문을 비교하여 누구의 것이 좋고 누구의 것이 나쁘고  
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런 비교를 통해 重譯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중한번역에서 참고로 삼을만한 점들을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이상의 예문을 통해, 重譯이라고 해서 반드시 번역의 질이 떨어  
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한번역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한자어 번역에서 영역본을 저본으로 한 重譯의 경우에 직접번  
역보다 한자어의 사용이 훨씬 적은 대신 한국 고유어 표현이 많아서, 우리  
말의 맛을 살리고 소설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었다. 또한 당시 시대 및 상  
황에 맞는 표현과 우리말 문법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표현도 더 많이 눈  
에 띄었다. 그러므로 重譯 작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重譯이 가지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또한 이것은 우리말과 정신을 자주적으로 계승하는 문제와  
도 맞물리기 때문에 중한번역에 임하는 역자들이라면 반드시 곱씹어볼 필  
요가 있다.

## &lt;References&gt;

1. Chen Fukang. *Zhongguo Yixue Lilun Shigao(A History of translation theory in China)*. Shanghai: Shanghai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ess, 2002.
2. Cho, Jaeryong. "Epistemology of the Double-translation".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54, (2011).
3. Gye, Yongmuk. "Translation of the book and translator problem". *A Trend journal*, (1954).

4. Hwang, Hyeonsan. "The doctrine of failure in translation". *Publication journal* 193, (1996).
5. Jeong, Naedong. "The necessity of cleaning up the literary world and importing foreign literature(3)". *The Dong-A Daily News*, (1935).
6. Kim, Anseo. "For pure language". *The Dong-A Daily News*, (1931).
7. Kim, Byeongcheol, *Korean Modern History of Translation* volume one. Eulyoo Publishing, 1998.
8. Kim, Jaehyeon, "The Translation of Philosophical Texts and Modernity in Korea". *Epoch and Philosophy-A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15.2, (2004).
9. Kim, Soun et al. "Translation culture and mistranslation". *The generation* 6, (1968).
10. Kong Huiyi & Yang Chengshu. *Yazhou Fanyi Chuantong Yu Xiandai Dongxiang(Translation in Asia: past and present)*. Beijing: Peiking University Press, 2000.
11. Lee, Gahyeong. "The present stage of Korean translation literature". *Maeil Business Corporation*, (1982).
12. Lee, Sangjeong. *A Study on meaning and translation methodologies of Sino-Korean Chinese words*. Sunmoon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12.
13. Liao Qiyi, *Zhongguo Jindai Fanyi Sixiang de Shanbian(Transformation of Modern Translation in China)*. Jiangsu: Nankai University press, 2010.
14. Lim, Sunjeong.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of retranslations: a descriptive research of 'the Red and the Black' of Stendhal". *The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6.1, (2008).
15. Liu Guilun. *Lun Chongyi de Shisulun(On the retranslation of secular)*.

- Hubei: Wuhan University press, 2015.
16. Lu Xun. "The theory of retranslation". *The SHEN News*, (1934).
  17. Moon, Yong. "Translation and translation culture". *The Korean life*, (1990).
  18. Park, Sangik. "The Humanities and Translation in Korea", *The Korean Historical Association* 174, (2002).
  19. Park, Yeongrok. "On Chinese-Korean Translation and Writing". *Journal of sinology* 7, (1998).
  20. Teachers who make warm world with books. *A guide to reading and learning books*. Prunsoop, 2001.

### < 참고문헌 >

1. 陳福康, 《中國譯學理論史稿》, 上海外語教育出版社, 2002.
2. 조재룡, 〈중역의 인식론: 그 모든 중역들의 중역과 근대 한국어〉, 《아세아연구》 제54권 3호, 2011.
3. 계용목, 〈작품의 번역과 역자 문제〉, 《경향신문》, 1954.
4. 황현산, 〈번역에 깔린 패배주의〉, 《출판저널》 193권, 1996.
5. 정내동, 〈문단숙청과 외국문학수입의 필요(삼)〉, 《동아일보》, 1935.
6. 김안서, 〈언어의순수를위하여〉, 《동아일보》, 1931.
7. 김병철, 《한국현대번역문학사연구 상》, 을유문화사, 1998.
8. 김재현, 〈철학 원전 번역을 통해 본 우리의 근현대〉, 《시대와 철학》 15권 2호, 2004.
9. 김소운 외, 〈번역문화와 오역〉, 《세대》 제6권, 1968년
10. 孔慧怡, 楊承淑, 《亞洲翻譯傳統與現代動向》, 北京大學出版社, 2000.
11. 이가형, 〈한국 번역문학의 현단계〉, 《매일경제》, 1982.
12. 이상정, 《한·중 한자어의 의미 및 번역에 대한 연구》, 선문대학교

- 박사학위 논문, 2012.
13. 廖七一, 《中國近代翻譯思想的嬗變》, 南開大學出版社, 2010.
  14. 임순정, 〈재번역본에 나타난 동질성과 이질성 -‘적과 흑’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제6권 1호, 2008.
  15. 劉桂蘭, 《論重譯的世俗化》, 武漢大學出版社, 2015.
  16. 魯迅, 〈论重译〉, 《申報》, 1934.
  17. 문용, 〈번역과 번역문화〉, 《국어생활》, 1990년.
  18. 박상익, 〈우리 인문학과 번역〉, 《역사학보》 제174집, 2002년.
  19. 박영록, 〈韓中翻譯과 글쓰기〉, 《중국학논총》 제7집, 1998년.
  20.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독서교육 길라잡이》, 푸른숲, 2001.

### < Abstract >

The famous novel 《Besieged Fortress》 written by the great Chinese author Qian Zhong Shu has been published twice in the Korea Republic during the 1990s.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is masterpiece is actually an indirect translation via its English version. The second Korean translation is a direct translation based on the original novel written in Chinese. Influenced by the English version instead of the original version, some parts of the first Korean version appear vague and rigid as it was unable to be expressed in corresponding appropriate Korean Chinese characters. However, translating this way has its own advantage compared to direct translation. As this would lead to free translation instead of literal translation, therefore it took away the interference from those Korean Chinese characters, as a result it used more authentic Korean words to make the story more vivid, and has a significant good effect in describing the era and the society then, in which the characters of

the novel had lived. Thus it also helps readers to understand the novel better. That is why this indirect version is regarded by many translators as an important reference book. Furthermore, it promotes Korean language and its culture, which of course is a desire for all translators from Korea. As a translator, you always want to do your best to produce the highest quality work and hope it will be liked by your readers. Because of that, your translation style has to be catered to the taste of your readers. This study shows that no matter whether it is a direct translation or an indirect translation, provided it helps producing a good translation work, being a translator you need to learn to apply either method or both into your translation to suit your readers.

**Key Words :** 錢鐘書(Qian Zhongshu), 圍城(Besieged Fortress), 轉譯  
(Indirect translation), 中韓翻譯(Chinese—Korean translation),  
英韓翻譯(English—Korean translation)